

##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경향과 의미

김성미<sup>1)</sup>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 협동조합 질적연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 비인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확장성'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등한 삶의 주체로서 서로의 문제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관계성 변화'이다. 셋째, 타자의 문제를 연구자(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의 이해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현실 개선 참여성'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및 비인간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고 주관적 체험의 느낌, 감각을 중시하여 다양한 예술적 자료 수집과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표현 방법의 다양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의 경향이 의미하는 것을 경계의 해체 및 통합, 관계성의 확장, 상생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의 여러 경계와 벽을 해체하고 넘나들며,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함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다채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포스트휴먼, 연구대상의 확장성, 관계성 변화, 현실 개선 참여성, 표현 방법의 다양성

1)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운영위원 (ksm25116@naver.com)

# Trends and meanings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Posthuman Era

Kim, Sung-mee<sup>1)</sup>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new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emerging in the posthuman era, examine their meaning, and explore how they are applied in cooperative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consisted of four new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First, there is the 'Expanding Research Scope' that appears as the object of research expands beyond humans to non-humans. Next is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ers and research subjects, which aims for social change by recognizing each other's problems equally as researchers and research participants as equal subjects of life.

Third, it is 'Promoting Real-world Engagement' that seeks to understand reality and seek practical improvements by recognizing others' problems as the researcher's (me) own problems. Lastly, it is 'Diversifying Modes of Expression' that views humans and non-humans as equal subjects, emphasizes the feelings and senses of subjective experience, and utilizes various artistic data collection and expression method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emerging qualitative research trend was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dissolution and integration of boundaries, expansion of relationships, and coexistence.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present diverse development possibilities for qualitative research in the posthuman era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in that they dismantle and cross various boundaries and walls in reality, and seek to coexist and coexist beyond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It is expected.

Key words: Posthuman, Expanding Research Scope, Changing Relationships, Promoting

Real-world Engagement, Diversifying Modes of Expression

---

1) Member of Ulsan Parent Education Cooperative Association (ksm25116@naver.com)

##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지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인간의 삶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나 구조를 새롭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신상규, 2020). 따라서 기존의 인본주의(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Le Grange, 2018).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는 과학적 담론을 넘어 인문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관심사이자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신상규, 2020). 이를 대표하는 철학적 이론적 관점은 후기구조주의의 반인본주의적 이론들에서 기원한 것으로, 인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다양한 존재들의 상호 연결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이향근, 2020). 이러한 사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 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박휴용, 2019).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 속의 인간 혹은 물질들 속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구 중심의 연구 전통에서 오랜 시간 당연시되어오던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담론과 물질,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균열을 가하는 새로운 ‘존재-인식론’(onto-epistemology)을 출현시켰다(Le Grange, 2018; Rosiek et al., 2020; 박휴용, 2020).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개념화는 항상 비인간적 존재들의 타자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 계급, 인종, 젠더, 언어, 그리고 자연의 대상화 등의 차별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박휴용, 2020). 이 중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간과 동물, 기계, 시스템, 지식, 도구, 자원, 매체 등을 포함하는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박휴용, 2020).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기계와 물질 등 비인간 물질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진 ‘포스트휴먼’이라는 시대의 도래는 그동안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질적연구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과 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 질적연구에서

벗어나 탐구대상을 인간과 또 다른 실체들(동물, 기계, 시스템, 지식, 도구, 자원, 매체 등)로 확장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기존의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전통적인 질적연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질적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의미를 고찰하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질적연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질적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II.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 이해

이 장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 존재론, 인식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행위, 문화를 모든 물질의 상호작용과 영향 속에서 이해하려는 탈인간중심적 사조’를 의미한다(정정훈·김영천, 2021).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비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오직 인간만을 세상의 주체로 여기고 비인간 물질과 존재들은 모두 객체로 여기는 인간중심주의(휴머니즘)를 비판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인간의 고유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동일성의 담론을 해체하려 한다(이향근, 2020).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Barad, 2007; 박휴용, 2019, 2020). 즉, 오랫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 온 절대적 진리와 합리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Derrida, Foucault, Rorty, Lyotard, Heidegger, Ellul, Leopard, Levinas, Nietzsche 등 철학자들의 사유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문 사회학의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해체적 탐구에 해당하는 연구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훈·김영천, 2021). 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 식물, 기계, 물질, 지식 등 모두는 존재론적으로 위계적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성 속에서 각각의 행위와 현상의 의미를 탐구한다.

정정훈·김영천(2021)은 다양한 연구의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적인 개념을 ‘존재자로서의 물질’, ‘행위자로서의 물질’, ‘비대표적 관계성’ 등 세 가지를 제

시하였다. 첫 번째 개념인 존재자로서의 물질은, 포스트휴머니즘은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의 존재자가 아니라 동물, 식물, 기계, 지식, 매체 등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물질을 존재자로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모든 비인간 물질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기계, 물질 등의 비인간 물질 또한 인간과 동등한 존재자로 보는 관점이며,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배제되어왔던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정정훈·김영천, 2021). 이러한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 인식의 주체와 대상, 정신과 물질, 생물과 무생물 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모든 존재자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신물질주의에 기반한다(Barad, 2003).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이 세상의 주체로 보는 대신에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등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에 기반한 위계적 관점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비인간 물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로 인식하고,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동등한 관계성에 있다고 본다.

두 번째 개념은 ‘행위자로서의 물질’이다. 인간중심주의(휴머니즘)에서는 인간만이 의도성과 의식을 가진 행위자로 여겨지고, 그 외 비인간 물질은 인간의 행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인간 행위 주변에 있는 도구로 여겨진다. 반면에 포스트휴머니즘은 모든 비인간 물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로 인정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 물질 모두를 행위자로 간주한다(Callon & Latour, 1981; Murdoch, 1998).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인간과 비인간 물질의 경계를 허물고, 간과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비인간 물질의 행위와 그 행위의 영향과 관계성에 주목한다.

세 번째 개념은 ‘비대표적 관계성’이다. 이 개념은 비인간 물질의 존재와 행위 그리고 현상을 이해할 때 특정한 하나의 물질만이 대표적인 존재로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관계성 안에서만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지식, 도구, 기술, 기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이들 모두는 관계적으로 동등하게 위치한다. 이들은 특정한 한 개의 존재나 물질 그 자체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닌 그 물질에 관련된 다른 존재나 물질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Adams & Thompson, 2016; Thrift, 2007).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인간존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담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논의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포스트(post-)는 ‘이후(post),’ ‘전환적(trans),’ ‘새로운(neo),’ ‘반(anti),’ ‘비판적(critical)’ 등의 의미가 있으며, 트랜스 휴머니즘, 네오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반 휴머니즘 등의 담론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박휴용, 2019).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보완적 연장(네오 휴머니즘)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휴머니즘을 뛰어넘어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긍정적 기대(트랜스휴머니즘)가 될 수도 있으며,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자 인간중심주의의 탈피인 탈-휴머니즘(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될 수도 있다(박휴용, 2020). 따라서 ‘post’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무엇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의미와 함께 이전 시대를 비판하되, 단절이 아닌 연속적 관계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향근, 2020). 본 연구에서는 탈 인간중심 담론인 포스트휴머니즘 일반이론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신물질주의

신물질주의(New materialism)는 소위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라는 시대적 전환으로 표현될 만큼 다양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박휴용, 2019). 신물질주의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신과 물질, 인간과 사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자를 동등한 존재자로 인정하는 관점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접근을 하는 Barad(2007)는 동식물이나 사물들을 비롯하여 지식이나 기술 자체에도 동등하게 능동성(agency)을 부여한다. 이처럼 신물질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위계를 버리고 모든 존재자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수평적인 관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평적 존재론(flat ontology)이라고도 불린다(박휴용, 2019).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 존재론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이론과 실제, 담론과 물질,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 추상과 구체 간의 경계 없이 서로 간 접촉하며 간섭하고 뒤엎기는 내부작용(intra-action)을 강조한다(박휴용, 2019). 따라서 신물질주의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구별하지 않으며, 상호연결되고 존재들 간에 명확한 경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물질주의는, 기존의 인본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모든 물질의 상호관계성에 주목하여 인간과 다른 모든 비인간적 존재들 간의 평등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동맹과 협력을 지향하고자 한다(Hood & Kraehe, 2017).

## 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1980년대 초부터 Bruno Latour와 Michel Callon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행위자 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인간과 기술, 동물, 건축물, 도구, 화폐 등 비인간 사이의 차별적 구분 없이 모든 존재가 행위자(actants)라는 관점이다(Callon & Latour, 1981). 즉, 동물, 도구(컴퓨터), 지식(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 자체) 등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인간적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이고, 이들은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기계 등 비인간 물질도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위자(agency)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 3. 비대표성 이론

비대표성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은 근대성과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프랑스 철학자 Merleau-Ponty의 현상학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의 사회학자 Nigel Thrift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론화되었으며, 다양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철학이다(박휴용, 2019).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성(representation)이란 지금까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존재들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탐색을 통해 발견하고 해석하며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론적 합리성에 기초해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표성 이론은 이에 대한 한계로 대두되었으며, 근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 속의 다양한 존재들과 현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표성 이론은 단일한 주체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이 다양한 공간 속에서 지속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인간의 신체는 세상, 혹은 비인간적 존재들과 쉽게 분리될 수 없고(Thrift, 1996), 신체는 비인간적 존재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세상과 물질적 관련성을 맺게 된다고 본다(박휴용, 2019). 또한 오직 인간에게만 주체성을 부여해 그 외 다른 물질들로부터 구별지었던 이성적 주체성 개념을 해체하고, 세상을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는 관점이고(Thrift, 1996, 2000),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영향을 받아 비인간적 존재들의 독립성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사색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이다(Harman, 2011).

포스트휴먼적 관점은 인간을 예외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이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며 인간을 다른 비인간적 물질들과 동등한 존재로 본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자연적 인간이든 혹은 기술적으로 변형된 인간(사이보그)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진화하고,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을 구성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의미나 행위의 원천이 인간만으로는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과 함께 진화하며, 기술적 생태 공간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섭하면서 이 세계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박휴용, 2019).

### III. 포스트휴먼 질적연구의 최근 경향과 특징

포스트휴먼 질적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구의 목적을 인간중심이 아니라 비인간적 대상 또한 중심에 두는데 있다(Connolly, 2013; Lewis & Owen, 2020).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질적연구가 인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질적연구와 가장 구별된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휴먼 질적연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연구자는 포스트휴먼 질적연구의 최근 경향과 특징을 연구대상의 확장성,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 변화, 현실 개선 참여성, 표현 방법의 다양성 등 4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 1. 연구대상의 확장성

대부분의 전통적인 질적연구는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즉, 문화기술지, 생애사, 근거이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질적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참여자는 인간이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자 연구의 대상은 그들의 삶이나 문화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 행위의 의지나 목적 또는 다양한 인간적 감정이나 가치였다(배은주, 2008). 전통적인 질적연구가 인간 참여자들의 행위나 문화, 의도,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즉, 동물, 식물, 기계, 물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간만이 주체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 물질 또한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나름의 생명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Bennett,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휴용(2019)의 포스트휴먼 시대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학습자는 학습에서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보다 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조에 속한 작용인(因)의 하나로 그 시스템의 물질성과 교호적 작용을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간의 학습’, ‘바이오로이드적 학습’, ‘네트워크적 학습’에서 인간, 사물, 기술 등 다양한 학습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집단적이며 분산적인 교류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서덕희, 2020). 또한 류영휘 외(2023)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육과정 연구 방법 연구에서 인본주의에 근거한 기존의 질적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 담론과 물질,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구성적 관계망에 주목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이 비인간 물질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질적연구와 비교해 연구 대상이 더 확장되고 있다.

##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 변화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에서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타자화’하였고, 연구대상자보다 권력에 있어 우위에 있으며, 주로 ‘타문화’를 연구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끊임없이 ‘타자화’했던 과거 연구 전통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 연구에서는 더이상 ‘타자화’하는 ‘타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분리, 주체와 타자의 구분,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등, 이들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면서 이들 간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경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공동의 주제에 관해 서로의 체험을 공유하고 해석하는 문화기술지이다. 이러한 자문화기술지의 특징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자전적 경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간략히 자문화기술지의 특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실존적 개인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존재로 간주한다. 즉, 인간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사회에 태어나 살게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독립적인 것은 불가능하다(배은주, 2008). 다른 이들과 관계 맺지 않고, 연관되지 않은, 고립된 개인이란 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과 체험, 이야기, 관점은 결국 한 개인의 사회,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개인은 각자의 개성과 독특한 경험을 지닌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과 연결된 존재이다. 따라서 각각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드러냄으로써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clarity), 반성과 해석을 통해 서로의 유사성을 인식(connection)하게 된다. 각각의 개인들은 이러한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문화기술지는 세계를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과 해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드러냄으로써 타인들과 공유하고 논쟁하며 소통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간을 창출한다(배은주, 2008). 결국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등한 삶의 주체로서의 관계성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3. 현실 개선 참여성

질적연구 중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직접 실행해 보고, 그것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다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배은주, 2008). 이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연구로, 좀 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현실의 개선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 지향적인 연구 경향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관계를 강조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등장 이후, 질적연구 전반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참여적 경향(participatory approach)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연구대상자)가 분리되어, 연구자는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그쳤다. 즉, 타자(연구대상자)의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연구자가 그것을 개선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연구자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자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자인 동시에 연구대상자가 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참여적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과학주의나 객관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주관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라는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참여, 체험, 실천을 통해 현실을 함께 구성해가는 것으로 본다.

질적연구의 참여적 경향은,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서 두드러진다. 참여적 실행연구는 실행연구의 참여성, 실천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사회, 교실뿐 아니라 산업체까지 확장된 비판적 실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

들이 초기 설계부터 최종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다(김선화·장승권, 2019). Kemmis & McTaggart(2005)는 참여적 실행연구가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고, 참여적이며, 실천적이면서 협력적이고, 해방적이고, 비판적이고, 성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배은주, 2008).

Zuber Skerritt(2001)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연구 절차로 나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변화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실천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구 그 자체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는 연구자의 실천적 삶과는 분리되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이제 연구는 그 자체로 연구자의 삶과 통합되어 연구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변화를 시켜나간다. 즉, 연구는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구자의 삶 자체가 되며 타자의 문제를 연구자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현실 개선을 모색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질적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 4. 표현 방법의 다양성

오늘날은 개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시대이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이고 내밀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와 사회의 맥락 안에서 역사와 정치성을 가진 영역이다(이향근, 2020).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분리하지 않는 참여적인 경향은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느낌, 감각을 중시하며, 이성, 객관성, 보편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체험, 감성, 상대성 및 특수성을 중시하는 것은 질적 접근과 가깝다. 체험의 주관성은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타자와의 관계, 전문가와 대중의 소통, 예술과 사회과학의 통합이 가능하다(배은주, 2008). 이는 질적연구가 재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도구를 활용하고, 문학적 글쓰기 방식까지 도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춤(dance), 영화(film), 조형 예술(plastic arts)과 다양한 내러티브(narrative), 시(poem), 사진(photo) 등 다양한 형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배은주, 2008).

한가지 예로 사진을 활용한 포토보이스 질적연구는, 사진을 뜻하는 ‘photo’와 목소리를 뜻하는 ‘voice’가 결합된 합성어로 사진에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연구 방법이다. Wang & Burris(1997)는 포토보이스에 대해 사람들이 특별한 사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체험의 주관성에 대한 존중, 느낌과 사고의 일원론적 태도,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과 창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배은주, 2008). 또한 인간, 비인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적 변화는 예술적 표현 기법을 활용하는 질적연구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상 현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질적연구의 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 방식의 도입은 바로 인간의 삶을 잘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을 연구의 중심에 두는 것을 넘어서 비인간적 물질도 인간과 동등한 연구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표현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 IV. 질적연구 특징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와 다른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즉, 연구대상의 확장성,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의 변화, 현실 개선의 참여성, 표현 방법의 다양성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장에서 연구자는 이것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 1. 해체와 통합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는 인간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남성과 여성 등 그간 인간으로 인하여 배제되어 온 대상들 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연구와 연구자의 삶이 통합되고, 연구 맥락과 일상 맥락의 경계가 허물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학문의 경계가 해체되고 학제적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다(배은주, 2008).

이러한 경향은 질적연구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연구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계가 뚜렷해 질적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연구 기법들이 경계가 해체됨으로써 질적연구 안으로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의 다양성, 텍스트에 대한 한계

극복, 연구대상자의 확대, 학문 간 경계의 해체 등 새로운 질적연구의 경향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와 일상적인 삶이 다르지 않으며 연구와 연구자의 삶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가 단지 연구에 그치는, 연구자의 실천적 삶과는 무관했던 지난날과 달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연구는, 연구자의 삶과 통합되어 연구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변화를 이루어낸다. 즉, 연구는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구자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 안에서 학문 간 경계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비판, 성찰,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들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학문 간 경계의 해체는 인간 사회의 실재를 넘어 비인간까지 통합하는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실천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경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을 창출한다(배은주, 2008). 이렇듯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해체와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변혁적이며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관계성의 확장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는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근대 시기의 관계성이 초래한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좁게 보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서 넓게 보면 연구자와 세계, 자연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반성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질적연구에서의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는 연구가 끝나면 그 관계는 종결되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에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연구대상자를 ‘타자화’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연구는 대개 연구대상자나 그 사회에 대한 관심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과 목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연구대상자는 단지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계적인 관계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이제 연구대상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는 수동적 존재인 타자가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인 참여자(participant)이자 행위자(agency)로 전환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연구대상자는 더 이상 연구자와 상관없는 타자가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이제 연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의 공동주체로 변모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Marcus(2001)는 ‘공동관계(complicity)’라고 부른다(Holmes & Marcus, 2005 재인용).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분리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가 인간과 비인간까지 확장됨에 따라 이들은 모두 ‘공동참여자(para-ethnographer)’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또한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연구자와 이웃, 환경, 동물, 기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관계성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상생하기

질적연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차별’의 문제이다. 인종, 민족, 동성애, 장애, 이민, 빈곤 등의 문제는 모두 차별과 관련된 문제이다. 차별이 없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질적연구가 지향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나는 질적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모두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와 인간을 넘어선 연구대상자 간의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향은 모두 대중과의 공감력을 더 크게 만든다(배은주, 2008). 질적연구는 단순히 전시행정을 위해, 혹은 응급한 처방적 정책을 위해 타자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Bauman, 2005).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남성과 여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차별을 넘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들이 상생하는 것을 돕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V. 포스트휴먼 시대의 협동조합 질적연구

이 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경향들과 의미를 중심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협동조합 연구사례를 살펴보면서 포스트휴먼 질적연구가 협동조합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김활신(2023)은 현대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조직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술의 발전은 정보시스템이 단지 기계 장치나 기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사용자와 같은 인간 행위자와 함께 구성되는 사회 물질적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정보시스템이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사회

물질 프랙티스를 통해 지속해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경영 현장에서 기술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용자 참여와 정보시스템 도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김활신, 2023). 같은 맥락에서 연구대상을 협동조합의 한 유형인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을 선택하여 협동조합의 정보시스템 전환과정을 분석한 사례연구(김활신·장승권, 2021)는 기술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사회물질의 기본가정은 관계적 존재로, 내재적 특성을 가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으며, 사람(사회)과 기술(물질)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구성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Barad, 2003). 이는 투자자소유기업과는 다른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고정되고 의도된 대로 수행되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프랙티스와 구성적으로 얽혀 역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와 물질의 구성적 얽힘은 인간이나 물질 중에서 어느 한쪽이 주도하면서 특권(privilege)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어느 한쪽에 우위성을 두고 그 영향력의 절대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구성적 얽힘은 사회와 물질, 사람과 기술 및 비인간적인 것 사이에 정해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사람과 기술, 사회와 물질의 합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협동조합이 투자자소유기업과의 차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투자자 소유 기업과 달리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사람과 기술의 상호구성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니즈를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또한 참여적 실험연구의 한 형태인 포토보이스를 사용한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김선화·장승권, 2019)에서 김선화는 생산자 연수프로그램에 동행하여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매일 포토보이스를 진행하였다. 그는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포토보이스를 통해 생협 조합원과 직원들의 공정무역 생산지 연수 경험을 분석하였고, 생산자들과 및 생산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생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보였던, 연구대상자를 수동적으로 취급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김선화·장승권, 2019) 사진을 직접 찍고, 스스로 사진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분리하지 않고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보며, 사진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 연구자 자신의 삶

과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전환(trans)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연구참여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와 실천을 결합하고 이해하는 데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경영 관행(문화)을 바꾸는 연구,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협동조합과 관련된 질적연구 사례는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비인간,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기존의 경계를 해체하고 통합하여 상생하기를 실천하는 사례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연구 흐름에 따라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I. 결론

이상에서 최근 도래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질적연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전통적인 질적연구와 구별되는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비인간으로의 확장으로, ‘연구대상자의 확장성’과 연구자(나)와는 거리가 먼 연구대상자(타자)의 이야기를 했던 데 반해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 변화’,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을 중요시하는 ‘현실 개선 참여성’, 마지막으로 인간 및 비인간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고 주관적 체험의 느낌, 감각을 중시하여 다양한 예술적 자료 수집과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표현 방법의 다양성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질적연구가 더이상 낯선 ‘타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넘어 비인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적연구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추구하며 학문적 연구를 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과 연결된다. 이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질적 연구 경향이 의미하는 것을 해체와 통합, 관계성의 확장, 상생하기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방법론을 통합하여 연구의 폭을 확장하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확장한다. 특히 투자자소유기업과 다르게 구성원들의 참여, 실천 등의 중요하게 작동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은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 경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 질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계를 해체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상생하기를 지향하는 질적연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더 다채롭고 실천적인 질적연구로 발전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VII.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경향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질적연구에 국한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질적연구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포스트휴먼 시대 질적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 명확하고 풍부한 연구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활신·장승권. (2021). 사회물질 프랙티스 관점에서 본 정보시스템 전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사례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5(4), 155-188.
- 김활신. (2023). 행위자 네트워크의 사회물질 프랙티스: 노동자협동조합의 정보시스템 전환.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 김선화·장승권. (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천공동체 학습: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2(2), 1-30.
- 류영희, 강지영, & 소경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육과정 연구 방법: '후기질적탐구'(post-qualitative inquiry) 를 중심으로.
- 박휴용. (2019). 포스트휴먼적 존재인식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의 성격과 방법.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9(2), 41-68.
- 배은주. (2008). 질적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1(2), 1-27.
- 서덕희. (2020).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의 포스트휴머니즘과의 접속과 생성. *교육인류학연구*, 23(1), 1-43.
- 이향근. (2021). 포스트휴먼 시대를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 31(특집), 93-104.
- 정정훈·김영천. (2021). 포스트휴먼 질적연구: 연구과정에 대한 방법적 탐색. *질적탐구*, 7(3), 1-42.
- 프란체스카 페란도. (2021).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 신상규·이상욱 외. (2020). 포스트휴먼이 물려온다 <https://blog.naver.com/misael/221794705880>.
- Adams, C., & Thompson, T. L. (2016). *Researching a posthuman world: Interviews with digital objects*.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Bauman, Z. (2005). *Liquid life*. Polity.
- Barad, K.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 801-831.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t, J. (2010). A vitalist stopover on the way to a new materialism.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91(1), 47-69.
- Callon, M., & Latour, B. (1981).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to do so. In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gration of micro-and macro-sociologies*. Boston: Routledge.
- Harman, G. (2011). *Guerrilla metaphysics: phenomenology and the carpentry of things*. Open Court.
- Holmes, D. & Marcus, G. (2005). Refunctioning ethnography: The challenge of an anthropology of the contemporary. In Denzin, N. & Lincoln, Y.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1099-111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Hood, E. J., & Kraehe, A. M. (2017). Creative matter: New materialism in art education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Art Education*, 70(2), 32-38.
- Le Grange, L. (2018). What is (post) qualitative research?.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 32(5), 1-14.
- Kemmis, S., McTaggart, R., Nixon, R., Kemmis, S., McTaggart, R., & Nixon, R. (2014). Introducing critical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The action research planner: Doing critical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1-31.
- Murdoch, J. (1998).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 357-374.
- Rosiek, J. L., Snyder, J., & Pratt, S. L. (2020). The new materialisms and Indigenous theories of non-human agency: Making the case for respectful anti-colonial engagement. *Qualitative inquiry*, 26(3-4), 331-346.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London: Sage
- Thrift, N. (2000). Afterword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 213-255.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 Zuber-Skerritt, O. (2001). Action learning and action research: paradigm, praxis and programs. *Effective change management through action research and action learning: Concepts, perspectives, processes and applications*, 1(20), 1-27.

|                      |
|----------------------|
| 논문접수일 : 2024년 1월 31일 |
| 심사완료일 : 2024년 2월 24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26일 |